

난지도에 피어난 사랑의 꽃길...마포구, 제3회 상사화 축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12일 난지 테마관광 숲길에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주제로 (사)마포문화관광협의회 주관 '제3회 마포구 상사화 축제'를 개최한다.

과거 쓰레기 산으로 불리며 오염과 악취로 황무지로 전락했던 난지도(蘭芝島)는 이제 '사랑의 꽃' 상사화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마포구가 2023년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아 숲길에 상사화와 꽃무릇 등 37만 본의 꽃을 심고 아름다운 시(詩)로 꾸며 난지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

기 때문이다.

난지도 상사화는 올해도 메타세쿼이아 숲길을 붉게 물들이며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바이올리니스트 이상희 앤프랜즈의 클래식 공연과 함서울의 서커스로 화려한 막을 연다.

이어 구민과 한마음으로 여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정가 감상과 점등식 하이 라이트 퍼포먼스가 펼쳐져 행사의 테

마인 '사랑의 꽃'을 피울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가수 나상도와 한혜진, 이수연이 아름다운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 상사화 축제를 찾은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예정이다.

상사화 축제에는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5분 만에 완성되는 초상화 '캐리커처', 상사화 향수 만들기, 느린 우체통, 아날로그 타자기 등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활동은 축제의 즐거움을 더욱 배가시킨다.

이장성 기자

마곡, '제1회 MCT페스티벌'로 3일간 미래 도시의 문을 열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마곡 일대에서 '제1회 MCT페스티벌(Magok Culture & Tech Festival)'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서울간 코엑스마곡, 마곡광장, 서울식물원 등 일대에서 대규모로 펼쳐진다. 이 축제는 음악과 문화, 첨단 기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글로벌 융합 페스티벌이다.

축제 첫날인 12일에는 야외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된다. 연예인 바자회, 소상공인 플라마켓, 책 읽는 마곡, 미래기술 놀이터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도 마련된다.

오후 6시에는 마곡 AI영상스토리 공모대전 시상式和 EBS-MCT 특별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예술 창작인과 시민이 어울어진 디제잉 하우스 파티가 펼쳐진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MCT 빅 콘서트'와 '테라 로드비어 페스티벌'이 저녁 메인무대에서 열린다. 다이나믹듀오, 코요태, 라포엠 등 인기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며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같은 날 코엑스마곡 르웨스트 4층 A

홀에서는 '2025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Unfold X) X MCT페스티벌 국제컨퍼런스'가 열려, AI·바이오·도시의 미래·SF 등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이 진행된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대학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 기술은 문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AI와 인간: 공감 기술과 창의적 협업 ▲바이오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논의한다. 또한 세계적인 SF 작가 켄 리우의 강연과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

우리 동네 과학 놀이터... 영등포구, '꼬꼬마 과학 축제' 개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9월 13일 오후 2시 신길근린공원에서 '신오마을 꼬꼬마 과학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함께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꼬꼬마 축제'는 신길5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며,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환경'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올해는 '과학'을 주제로 아이들이 놀이처럼 과학을 체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드론 낚시 ▲드론 레이싱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붕송아 물들이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가훈 써주기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또한 이동형 정원문화센터인 '달려라 정원버스'에서는 ▲화분 만들기 ▲반려식물 클리닉 등 식물과 교감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신길5동 자치회관 중국어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합창 공연이 진행되며, 작은도서관 글짓기 대회 우수 작품도 전시된다. 축제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 상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과학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를 통해 우리동네가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9일(화), 16년 만에 사업 본궤도 오른 철거 현장점검, 신속·투명한 사업추진 강조

마지막 '달동네'에서 불안산을 품은 최고 35층 명품 주거단지로 2029년 재탄생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안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에 대해선 이주 시 인근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 후에도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 내·외 임대주택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한편 백사마을은 지난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기존 2,437세대(임대 484세대 포함)에서 741세대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대규모 주택공급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24일 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거지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정비계획과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과 '조건부 의결' 했고, 지난 달 21일 최종 고시했다.

지난 5월 본격 철거 시작 후 현재 전체 1,150동 중 611동의 철거가 완료됐고, 올해 12월에 하체공사를 완료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서울광장에 케데헌 음악 울려 퍼진다...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

케데헌의 배경 도시 서울에서 명장면 OST와 안무를 활용한 글로벌 커버 경연 개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배경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이 국내외 케데헌 팬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가득 채워진다. 시는 14일(일) 저녁 6시, 서울광장에서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MC 딘딘과 조현영의 재치 있는 진행 아래 내외국인 총 10팀이 참가해 케데헌 OST와 안무를 활용한 커버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최근 유튜브 쇼츠 조회수 900만 회를 달성한 '초딩 헌트릭스'도 이번 경연에 참가한다.

참가팀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됐으며, 서울에 오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경연도 병행하면서 글로벌 팬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

경연은 댄스와 보컬, 두 부문으로 나뉘어 케데헌의 주요 명장면에 삽입된 5곡을 활용한 라운드 배틀(Round battle) 형식으로 펼쳐진다. 모든 경연 종료 후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반응을 종합해 총 4팀(댄스 2팀, 보컬 2팀)이 최종 수상자의 영예를 안게 된다.

순서는 1라운드(Exo 'Love Me Right'), 2라운드(멜로망스 '사랑인가봐'), 3라운드(사자보이즈 'Soda Pop'), 4라운드(사자보이즈 'Your Idol'), 5라운드(헌트릭스 'Golden')로 진행된다. 이 중 온라인 경연은 사전에 제출한 퍼포먼스 영상을 심사위원들이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하며 비대면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또 다른 묘미는 케이팝으로 하나 된 관객들이 무대를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이다. 전문 댄서의 시범에 맞춰 '소다팝(Soda Pop)' 포인트 안무 레슨, 무작위 케이팝 곡에 맞춰 춤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등 관람객과 경연 참가자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축제 피날레는 케데헌의 액션 장면과 안무 제작에 참여한 태권도 공연팀 'K-타이거즈'가 장식한다. 전 세계적으로 헬린지 열풍을 일으킨 'Soda Pop'과 'Your Idol' 곡에 맞춰 태권도와 K-pop을 절묘하게 융화시킨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K-타이거즈'는 단순한 시범 중심의 태권도 공연을 넘어 다양한 갈라쇼와 융복합 공연을 창작해 전 세계 100여 개국

에서 태권도 공연을 펼치고 있는 문화사절단이다.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장면은 서울 관광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youtube.com/@VisitSeoulTV)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라며, "서울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이 K-컬처와 도시의 매력을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케데헌 열풍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열리는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은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연 속에서 보던 서울의 풍경과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AI 기반 '서울형 고도처리공장 파일럿플랜트' 운영

시 자체 개발 '서울형 고도처리공장'...AI가 악플 주입부터 여과지 세척까지 자동 수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고도처리공장 파일럿플랜트'를 완공하고 시범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상수도종합계획 2040」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수돗물 수질을 관리하고, 정수장 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해 미래형 정수장의 표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상수도 종합계획 2040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물 관리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세계 최고 물맛' 실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안심 아리수' 확산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서울형 고도처리공정의 핵심은 ▲전오존-후여과 공정을 적용한 고도처리 정수방식으로 수질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고, ▲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정수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두 가지다.

먼저 이번 설비에 전염소 주입을 대체하는 '전오존 공정'과 인자성 물질을 보다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후여과 공정'을 새롭게 도입했다.

본격적인 설비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수돗물 품질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오존 공정'은 기존 염소 대신 오존을 투입해 유기물을 먼저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소독약 냄새 및 부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후여과 공정'은 모래와 미세여과망을 함께 활용해 수돗물 속 아주 작은

입자까지 걸러내 수돗물의 투명도와 청량감 향상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을 추가했다. 시가 자체 개발한 악플 자동주입 시스템과 역세척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수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악플 투입량, 여과지·활성탄지를 자동 세척해 정수장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정수장은 기존 수동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AI 알고리즘을 통해 수질 변화와 외부 환경 조건에 실시간 대응하고, 악플 투입량, 세척 주기, 펌프 운전 등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체계다.

이장성 기자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수사한

경기공유학교

아이들

세계창의력 올림파에도
2025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대상 수상

대상
(경기도교육청 주최)

저용준 학생
용인미로아이 경희대 연계 AI SW 공유학교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강

경기공유학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생 맞춤수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경기도 학생에게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초3~고3 학생 및 동원 연평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홈페이지 신설

• 3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지역공유학교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지역별 상시 모집 중)

• **프로그램 출결·이수 내역** 확인 가능

경기공유학교 검색

gong-u.goe.go.kr